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Reuters: 미 제조업 활동, 8개월만에 가장 낮아
- Bloomberg: 연준, 9월 금리 인하 신호... 일자리 시장 리스크도 언급
- Bloomberg: 미 근로자 생산성 상승...노동 비용 상승세는 둔화
- Bloomberg: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 1년만에 가장 높아

[미국 금융]

- CNBC: 달러 반등세... 연준 금리 인하 신호로 약세 후에
- Bloomberg: 연준의 비둘기파 입장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4% 아래로 감소

[미 대선]

- NYT: 트럼프 후보자, '저금리' 약속

[원유]

- CNBC: 이란-이스라엘 전운 고조로 미 원유 배럴당 78달러 돌파

[글로벌 경제]

- WSJ: 아시아 제조업 회복세 지속...인플레 압박 부담도
- WSJ: 연준이 금리 동결한 날에 영국은행은 금리 인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미 교통부, 항공사의 부모-자녀 동반 착석 유료화 금지
- WSJ: 미 식당 체인, 수년간 가격 인상 후 소비자 한계에 부딪혀
- Bloomberg: 허츠, 테슬라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보고
- CNBC: 타코 벨, 올해 말까지 매장에 AI 드라이브스루 도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FinanceYahoo: US manufacturing gauge drops to eight-month low

미 제조업 활동, 8개월만에 가장 낮아

- 최근 신규 주문이 둔화된 가운데 7월 미 제조활동 관련 지수가 8개월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과장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2분기에 제조 관련 생산성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것.
- 오늘 목요일 공급관리자(ISM)에 따르면 제조 구매관리자지수는 46.8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50 미만은 제조 부문에서 위축을 의미한다. 제조 분야는 미 경제에서 10.3%를 점유하고 있다.

- 이처럼 4개월 연속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제조지수는 4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42.5 이상을 유지하면 전반적인 경제가 확장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전망치는 48.8이었다.

Reuters 기사

Bloomberg: Fed on Course for September Rate Cut as Risks to Job Market Grow

연준, 9월 금리 인하 신호... 일자리 시장 리스크도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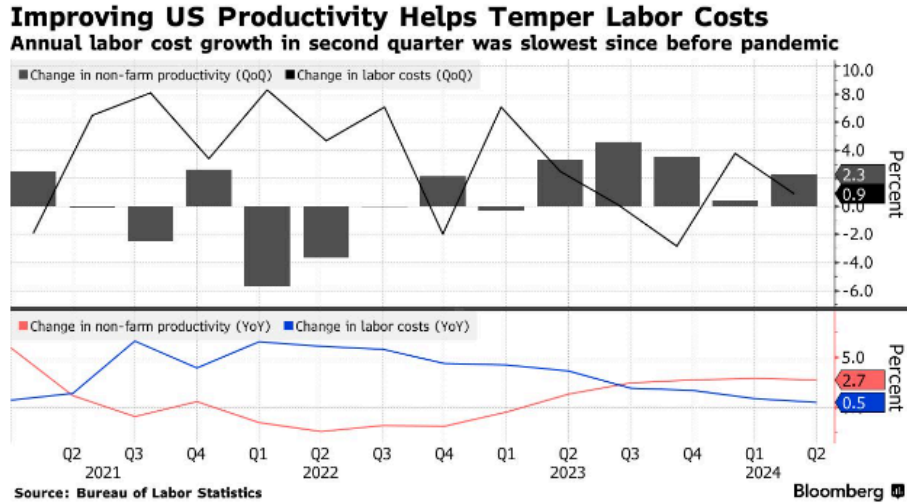
- 연준의 파월 의장은 어제 수요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개선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연준 관리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 파월 의장은 20여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가까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제 제약 정책을 완화하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수개월간 물가 지표가 실망스러울 경우 연준 관리들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신중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 이같은 파월 의장은 언급에 대해 전 뉴욕 연준 총재를 역임했던 William Dudley는 “연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봤을 때 경제 전망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연준은 어제 기준 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같은 수준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Productivity Picks Up While Labor Cost Growth Moderates

미 근로자 생산성 상승...노동 비용 상승세는 둔화

- 올해 2분기 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예상보다 컸으며 노동 비용 상승세는 둔화되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 생산성은 비농가 근로자가 시간당 만들어내는 생산량인데 오늘 목요일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에 연율로 2.3% 상승했다. 1분기에는 약간 상승 조정됐다.
- 이같은 1분기 조정치도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간 수치를 비교했을 때도 2분기 생산성은 2.7% 상승했다. 단위 비용은 0.5%로 팬데믹 이전 이래로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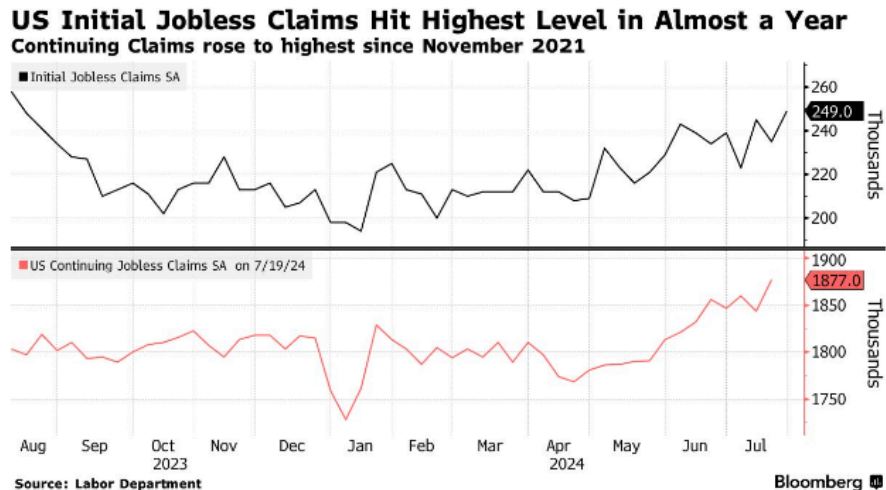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Rise to One-Year High as Hiring Slows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 1년만에 가장 높아

- 미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이 거의 1년에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27일 끝나는 신규 주간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4천건이 늘어난 24만9천건으로 나타났다.
- 당초 예상치는 23건6천건이었는데 특히 미시간과 미주리는 청구 건수가 가장 크게 늘었다.
- 계속해서 받는 전체 청구 건수도 1백88만건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래 가장 많았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BC: Dollar bounces after Fed decision while pound slides before BOE
달러 반등세...연준 금리 인하 신호로 약세 후에

-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둔 어제 수요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 후에 오늘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은행의 금리 인하 후에 파운드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 6개 통화와 비교하는 달러 지표는 0.29% 상승한 104.35를 기록 중이다. 전날에는 연준이 9월 차입 비용인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신호 이후에 0.4% 떨어졌었다.
- ING의 글로벌 마켓 책임자인 Chris Turner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현재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인 갈등과 아시아와 유럽 등의 글로벌 경제의 둔화로 인해 이른바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인 달러는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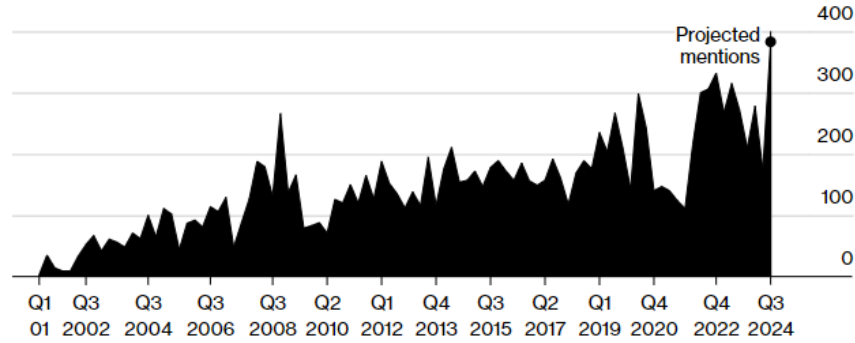
Bloomberg: US 10-Year Yield Drops Below 4% on Dovish Fed Bets
연준의 비둘기파 입장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4% 아래로 감소

- 최근 경기 둔화 지표들로 투자자들이 올해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 내일 금요일 미국 일자리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률은 거의 1년만에 가장 높고 7월 제조 활동은 8개월 만에 가장 위축됐다. 노동시장도 수개월간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다.
- 10년물 국채 시장은 5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3.98%를 보이고 있으며 S&P 500은 5,540으로 상승했고, 블룸버그의 ‘메그니피센트 7’ 지수는 1.8% 상승했고 반면에 소형주 중심의 Russell 200지수는 0.8% 줄었다.
- 메타는 판매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주가가 10% 급등했는데 향후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스닥 100의 추세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The Fed Is Featuring on Earnings Calls Like Never Before

Number of mentions of Federal Reserve on calls is set to hit an all-time peak

■ Number of mentions by S&P 500 and Stoxx 600 companies



Source: Bloomberg

Note: Analysis of company post-earnings conference calls for mentions of "Federal Reserve" and synonyms

Bloomberg 기사

[미 대선]

NYT: Trump Promises Lower Interest Rates, but the President Doesn't Control Those

트럼프 후보자, '저금리' 약속

-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는 당선될 경우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못하고 있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는 수요일 "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낮추었다"고 말했다.
- 대통령직은 금리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 연준이 차용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연준은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트럼프는 때때로 연준이 금리를 자기 임기에 낮출 것이라고 암시해 왔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은 그의 정책 중에 일부는 금리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의 발언들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물가 상승과 높은 금리를 정치적으로 상당히 두드러진 이슈로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독립을 추구해야 할 연준에게 다가오는 수개월은 정치적으로 힘든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T 기사

[원유]

CNBC: U.S. crude oil breaks \$78 per barrel as fears of war between Iran and Israel grow

이란-이스라엘 전운 고조로 미 원유 배럴당 78달러 돌파

- 하마스 지도자의 암살 사건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목요일 미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78달러를 넘어섰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수요일 하니예의 사망 이후 약 5% 가까이 급등했다.
- 한편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을 명령했다고, 이란 관리가 뉴욕타임즈에 전했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Asian Manufacturing Recovery Continues, But Some Cracks Start to Show

아시아 제조업 회복세 지속...인플레 압박 부담도

-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7월의 공장 활동이 상당히 양호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제조업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S&P Global의 구매관리자지수(PMI)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아세안 지역의 신규 주문 증가율은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이코노미스트 Maryam Baluch는 신규 주문 증가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직원 채용은 늘리는 등 수요 여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하지만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중앙 은행들이 정책 금리를 엄격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은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며,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제조업체들이 추가 비용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주목해야 한다.

WSJ 기사

WSJ: Bank of England Cuts Rates After Fed Held Off

연준이 금리 동결한 날에 영국은행은 금리 인하

- 영국은행은 4년 이상의 기간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은행은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린 5%로 정했다. 영국은행은 작년에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 대출이 힘들었으며 매우 큰 적자 상태를 보인 영국 정부에 부담을 키워왔다.

- 영국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영국은행의 목표인 2%로 방향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지난 6월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5.7%로 갑자기 높아진 상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 투표 결과, 정책 결정자 중에 5명은 0.25% 인하, 그러나 4명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개선된다는 확신이 없어 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US Seeks Ban on Airlines Charging Parents to Sit With Their Kids

미 교통부, 항공사의 부모-자녀 동반 착석 유료화 금지

- 미 교통부가 항공사들이 부모에게 어린 자녀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 목요일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13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탑승하는 부모에게 인접 좌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하거나 비행기 출발 전까지 대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 규정을 위반하는 항공사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피트 부티지치 교통부 장관은 “비행기에서 부모가 자녀 옆에 앉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는 표준 관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번 조치는 여행객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항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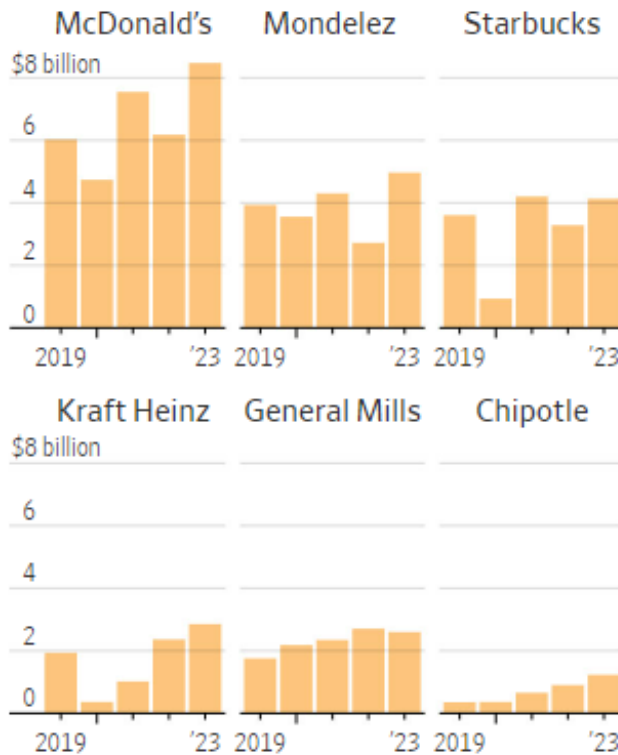
WSJ: After Years of Raising Prices, Food Companies Hit Consumers' Limits

미 식당 체인, 수년간 가격 인상 후 소비자 한계에 부딪혀

- WSJ가 미국 10대 레스토랑 체인의 지난 회계연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모두 2019년 수준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폴레와 올리브 가든 등 일부 체인은 영업비용 대비 매출 비율로 나타낸 점포 이익률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 이와 관련해 많은 소비자들과 정치인들은 가게 예산은 예전만큼 늘지 않았는데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이에 식품업계 경영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상승한 인건비, 재료비, 운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이 높은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식품업계 경영진들은 소비자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제품에 투자하고 인건비와 원재료 비용 등 급증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윤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체인은 물가 상승률 이하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했으며, 소비자들이 결국 높은 가격에 적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미노피자의 CEO 러셀 웨이너는 레스토랑들이 생각만큼 쉽게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돌이켜보면 가격 책정 권한이 없다”며, 도미노피자가 경쟁사보다 가격을 덜 올렸으며, 전체 레스토랑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느리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Annual net profit for major restaurant chains and food manufacturers



Note: The fiscal year for Starbucks ends in late September or early October; General Mills, in late May.

Source: S&P Capital IQ

WSJ 기사

Bloomberg: Hertz Falls Short of Estimates as Soured Tesla Bet Fuels Losses

허츠, 테슬라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보고

- 렌터카 기업 허츠 글로벌 홀딩스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실패로 인해 보유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했다.
-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허츠는 2분기 조정 주당 1.44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 손실인 1.17달러보다 더 큰 수치이다.
- 허츠는 차량 한 대당 감가상각비가 월 600달러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전기차를 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번 결과는 회사의 전략적 전환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여준다. 허츠는 전 델타항공 임원 출신인 길 웨스트 신임 CEO 체제하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테슬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Taco Bell to roll out AI drive-thru ordering in hundreds of locations by end of year

타코 벨, 올해 말까지 매장에 AI 드라이브스루 도입

- 암 브랜드는 올해 말까지 수백 개의 타코벨 매장에서 AI를 활용해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수요일에 미국 내에서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암 브랜드는 웬디스, 화이트 캐슬 등 경쟁사들과 함께 음성 AI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회사들은 음성 AI가 서비스 속도를 높이고 인건비를 줄이며, 업셀링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레스토랑 기업들은 직원과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을 테스트하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암 브랜드는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타코벨의 음성 AI 시범 운영을 30개 레스토랑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는 미국 내 100개 이상의 타코벨 매장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 암 브랜드는 이 기술이 주문 정확도를 높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레스토랑의 수익성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CNBC 기사

듣고 싶었던 발언해준 파월...시장은 9월 '0.5%p 인하'도 기대

빅스텝 가능성, 파월 회견 전 5%→회견 후 17%로 올라
연말까지 0.75%포인트 금리 인하 예상 확률 63%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9월 금리인하' 시사 발언을 시장의 입맛에 맞게 해줬다.

파월의 발언이 너무 듣기 좋았는지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에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를 인하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 번인 9월 회의 때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